正祖 즉위 초기 對淸 외교 정책과 조정의 對淸 인식*

한 승 현**

1. 머리말
2. 즉위 초기 정조의 대청 외교
  1) 奏文 違式 陳奏 외교
  2) 심양 문안사의 파견
  3) 東巡 진하 외교의 시도
  4) 건륭 칠순 진하 논의의 전개
3. 정조 즉위 초기 조선 조정의 대청 인식
  1) 사신의 청 현실 및 건륭제 평가
  2) 청에 대한 화이론적 시각
  3) 許衡 文廟 黜享 논의
4.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학계에서 정조 연간의 조선-청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1780년 건륭제의 칠순를 경축하기 위해 정조는 황제의 칠순 진하 사신 파견이라는 전례 없는 외교를 펼쳤고 이에 건륭제가 호의적 반응을 보이자 조선은 이후 빈번한 사신 파견을 통해 청에 정성을 기울인 사대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또한 건륭제 역시 조선의 정성에 호응하여 조선 사신을 더욱 우대하였

* 본고를 읽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기에 정조 연간 양국 간에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었다는 것이다.[1] 이러한 연구에서는 특히 1780년과 1782년을 양국 간 관계 변화의 중요한 계기로 중시한다. 건륭제가 1780년 칠순 만수절을 열하에서 개최할 때 건륭 연간 청의 판도에 새로이 들어온 外藩들을 특별히 초대하여 건륭제의 위업을 과시하려 했는데 마침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이 우연히 열하의 연회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어 건륭제의 우대를 받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1782년부터 건륭제는 그동안 북경 궁정에서 거행되는 각종 연회에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던 조선 및 기타 조공국들, 그리고 일부 外藩들에게 연회 참석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로 인해 정조 연간 조선 사신은 연회에서 황제와 자주 접촉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청의 고관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조가 즉위한 1776년부터 건륭제의 칠순 성절이 있던 1780년까지의 조선의 대청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2] 대다수 연구들이 1780년의 칠순 진하 외교부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정조 즉위 초기 대청 외교 정책은 사실상 연구의 공백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조 연간 대청 관계 전개상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는 건륭제 칠순 진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조 즉위 초기의 대청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된다. 칠순 진하 외교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조 즉위 초기 외교 정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조 즉위부터 1780년까지 정조가 펼친 대청 외교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조선이 취한 대청 외교 전략이 건륭 칠순 진하 외교로 연결되거나 활용되는 양

1) 정조 연간 조청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구범진, 2013「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명청사연구』40; 2014「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한국문화』68; 2017「1780년대 청조의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의 변화」『명청사연구』48; 2019「청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역사문화연구』68; 김창수, 2016『19세기 朝鮮·淸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6-91면; 2019 「건륭연간 외교 공간의 확장과 조선 사신의 교류: 朝鮮·淸 지식 교류의 기반에 관하여」『한국학논총』51; 손성욱, 2018「淸 朝貢國 使臣 儀禮의 形成과 變化」『동양사학연구』143; 허태구, 2020「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의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지역과 역사』47.

2) 이에 대해서는 김창수, 2016 위의 논문, 46-55면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건륭 칠순 진하를 정조 즉위 이래 전개된 대청 외교 전략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해줄 것이다. 조선 조정이 건륭제의 칠순 진하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은 그동안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본고의 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정조 즉위 후 1780년에 이르는 즉위 초기 국왕과 신료들의 대청 인식도 분석해 볼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쳤는데 그렇다면 이는 당시 조선 조정이 지니고 있던 대청 인식 상에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기에 도출된 정책이었을까? 아니면 기존 대청 인식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 증진이라는 외교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이었을까? 다시 말해 이 분석은 정조의 적극적 대청 외교정책이 기존 華夷論的 사유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사대정책과 華夷論은 공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조선과 청의 관계가 상호 우대정책으로 인해 더욱 우호적으로 변하는 1780년대 이후 정조 연간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즉위 초기 정조의 대청 외교

1) 奏文 違式 陳奏 외교

정조는 영조를 이어 즉위한 직후부터 대청 사대에 정성을 다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조 연간에도 청의 조선 우대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선도 사대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3] 정조가 즉위 초반부터 보여준 적극적 사대 외교는 영조 연간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즉위 직후 정조를 국왕으로 책봉하는 청의 칙사가 도착하기에 앞서 정조는 칙사가 도착한 이후 시행해야

3) 연갑수, 2010「영조대 對淸使行의 운영과 對淸關係에 대한 인식」『한국문화』51, 57면; 허태구, 앞의 논문, 151-152면.

하는 茶禮에 앞서서 음식을 제공하는 의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左議政 金尙喆은 비록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나 小饌을 제공하는 것도 깊은 속정[慇懃之意]을 보여줄 수 있는 방책이라 좋을 듯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상철은 또한 건륭 8년(1743) 건륭제가 친히 써서 조선에 하사한 '式表東藩'이라는 편액을 이전 칙사들이 조선에 와서 찾아본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색을 미리 입혀 대비해 놓았다고 보고하였다.[4] 칙사 도착에 앞서 정조가 칙사 영접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정조 1년 10월 북경으로 출발해 이듬해 귀국한 進賀謝恩陳奏兼三節年貢行은 정조의 대청 외교 역량을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正使 河恩君 李垙이 이끌었던 이 사행은 洪麟漢, 鄭厚謙 등을 위시한 역당 무리의 토벌 사실을 건륭제에 보고하는 奏文을 가지고 갔는데 이 주문을 읽은 건륭제가 주문에 나오는 '儲君' 및 '嗣位' 등 몇 가지 용어의 違式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 사실이 先來狀啓를 통해 정조 2년 3월 2일[5] 조선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6] 그러자 정조는 청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7] 3월 3일 대신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정조는 자신이 왕위를 계승한 초기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향후 이를 계기로 청이 매번 조선의 事大 정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8] 정조에 따르면 이전에는 조선이 '小邦의 道'를 다하였기에 이렇게 책망을 듣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청에 사과하기로 결정하였고,[9] 당일로 蔡濟恭

4) 『承政院日記』 1390책, 정조 즉위년 10월 25일 癸亥. 이하 『承政院日記』의 인용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http://sjw.history.go.kr).

5) 본고에서 사용하는 날짜는 모두 음력에 따른 것이다.

6) 淸 禮部 儀制司의 설명에 따르면 '儲君' 및 '嗣位'는 조선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였고 奏文에 사용된 또 다른 용어인 '世孫' 및 '嗣爵'은 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이었다. 김창수, 2016 앞의 논문, 49-50면 참조.

7) 『承政院日記』 1415책, 정조 2년 3월 2일 壬戌, 3월 3일 癸亥 등.

8) 『正祖實錄』 권5, 정조 2년 3월 3일 癸亥.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illok.history.go.kr). 이하 『朝鮮王朝實錄』의 인용은 모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

9) 『承政院日記』 1415책, 정조 2년 3월 2일 壬戌; 3월 3일 癸亥.

을 정사로 하는 사행의 인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10]

그런데 이렇게 사행을 파견하여 사과하기로 조정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 사행이 청에서 들은 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의정 김상철은 "이번 일은 비록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저쪽의 소식[彼中消息]을 듣건대 마땅히 우리나라가 사행을 추가로 보내야 할 듯하다고 합니다. 한번 사신을 보내 황송하다는 뜻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 하였는데,[11] 여기서 '彼中消息'이란 사행의 성원들이 탐문한 청 측 관원들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피중소식'은 조선이 대청 외교 정책을 구상할 때 분명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영의정 김상철의 말에 대한 정조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정조는 傳敎에서 "사신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비록 매우 다행이긴 하지만 주문 가운데 字句가 격식에 위배되어 禮部에서 移咨한 바 있고 또한 大國消息을 듣건대 마땅히 別使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한다"라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정조가 이번에 사과하는 별사를 파견하게 된 데에는 정조 및 대신들의 주체적 판단이 물론 중요했지만 아울러 조선 측에서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청조 관원의 가이드라인 제시[大國消息] 역시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2] 후술하듯 정조 즉위 초기 대청 외교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청 측 관원들의 의견은 조선의 대청 외교 방향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조선이 건륭제의 칠순 진하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주문 어구 문제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는 사행이 또다시 유사한 문제로 트집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정조는 만전을 기하려 하였다. 그래서 사신단이 3월 17일 출발하기 이틀 전에 正使, 副使, 書狀官 및 大提學을 불러 청

10) 『承政院日記』 1415책, 정조 2년 3월 3일 癸亥.

11) 『承政院日記』 1415책, 정조 2년 3월 3일 癸亥.

12) 사실 이는 비단 이번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찍이 영조 19년(1743) 10월 20일, 심양 문안사가 돌아온 후 領議政 金在魯는 영조에게 謝恩使 파견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彼中의 議論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여 청 측의 의견 역시 사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承政院日記』 964책, 영조 19년 10월 20일 己巳.

에 제출할 주문의 초고를 읽게 하며 문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사 채제공은 북경에서 사신이 귀국 전에 보내는 선래장계가 청나라가 꺼리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또다시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13] 정조 즉위 초기 건륭제가 주문의 글자를 지적한 이후 조선 조정이 대청 외교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앞서 문제가 된 주문을 올린 이광을 비롯한 사행이 돌아와 복명한 날짜가 3월 29일이니[14] 정조는 문제의 사행이 귀국하기도 전에 선래장계에 입각하여 대책을 세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신까지 출발시켰던 것이었다.

그런데 주문 위식 문제를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파견된 이번 사행은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정사 채제공의 북경 장계는 정조 2년(1778) 6월 조선에 도착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조가 스스로 허물을 인정했다 하여 건륭제가 정조의 공순함을 칭찬하며 매우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었다.[15]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정조는 사신의 임무가 성공한 데에 안도하였고 都承旨 洪國榮은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낸 데 대해서 몹시 기뻐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사신을 보낸 것이 성공적 결정이었다고 자평하였다.[16]

조선 조정이 이번 별사 파견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였음은 사행이 귀국하여 복명한 날인 정조 2년 7월 2일 정조와 사신이 나눈 대화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자리에서 정조가 "이번 사행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가?" 하고 묻자 정사 채제공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불편해하는 뜻이 많았는데 신등이 들어간 이후에는 기색이 매우 기뻐하며 咨文을 재촉해서 들이고는 극진히 칭찬하며 조선의 예절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17]라 대답하였다. 조선이 특별히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별사를 파견하자 건륭제가

13) 『承政院日記』 1415책, 정조 2년 3월 15일 乙亥.

14) 『承政院日記』 1416책, 정조 2년 3월 29일 己丑.

15) 『正祖實錄』 권5, 정조 2년 6월 1일 己丑.

16) 『日省錄』, 정조 2년 윤6월 6일 甲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이용; 『承政院日記』 1423책, 정조 2년 윤6월 6일 甲子.

17) 『承政院日記』 1425책, 정조 2년 7월 2일 己丑.

이를 상당히 좋아했음을 당시 조선 조정에서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경험은 향후 조선이 건륭제의 칠순을 맞아 진하사를 파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건륭제의 정치가 매우 엄하고 가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18] 이러한 인식 또한 양국 간 외교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조선이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게 된 배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심양 문안사의 파견

앞서 채제공이 이끄는 謝恩兼陳奏使 일행을 접하고 기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는 건륭제는 祖陵을 참배하기 위해 1778년 瀋陽으로 東巡을 떠났다. 이보다 앞서 정조 1년 12월 조선 조정에서는 북경 禮部 및 盛京 예부에서 보낸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내년 가을 황제가 심양에 행차할 때 조선이 문안사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19] 그러나 영의정 김상철은 황제가 비록 폐단을 없애준다는 뜻으로, 또 황태후 사망 후 27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에 문안사를 파견하지 말라고 했지만 "비록 청의 뜻이 이와 같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도리에 있어서 어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안사 파견을 정조에 건의하였으며 결국 조선에서는 문안사 파견을 요청하는 자문을 작성하여 齎咨官 편에 청에 보내게 되었다.[20] 청이 심양 문안사를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조선에서는 사대의 정성을 보이려는 의도로 문안사 파견을 청에 요청하였던 것이며 결국 이 요청은 수용되었다.[21] 앞서 채제공이 이끄는 별사 파견으로 건륭

18) 『日省錄』, 정조 2년 윤6월 6일 甲子; 『承政院日記』 1423책, 정조 2년 윤6월 6일 甲子.

19) 『承政院日記』 1410책, 정조 1년 12월 10일 壬寅.

20) 『承政院日記』 1410책, 정조 1년 12월 16일 戊申. 청대 황제가 순행을 떠나기에 앞서 청 조정이 순행로 주변 지역에 문안사 파견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통례이며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문안사 파견을 요구하는 것 역시 통상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청의 문안사 파견 중단 지시와 조선의 파견 요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절차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대 조선의 문안사 파견 자료를 모두 검토해 보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1778년 동순을 제외하면 청이 문안사 파견을 면제해 주었다거나 조선이 이를 요구하였다는 사례를 관련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21) 『承政院日記』 1420책, 정조 2년 5월 22일 辛巳.

제가 기뻐했음을 확인한 정조의 조정에서는 이번에도 청의 사신 파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신 파견을 강행하여 사대의 정성을 청에 보이려 했던 것이다. 조선의 적극적 대청 외교가 이미 정조의 즉위 직후부터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 조정은 이듬해인 정조 2년, 심양에 문안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李溵을 정사로 하는 이 문안사행을 건륭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접대해 주었다. 사신들이 황제를 지영할 때 건륭제는 조선 국왕의 나이와 안부, 조선의 정치 현안(홍인한 역적 처리 문제)과 작황, 사신의 나이와 관직, 만주어 구사 여부를 물어보았다.[22] 황제가 심양 崇政殿에서 朝參禮를 거행할 때에는 정사 이은과 서장관이 참석하였고 황제가 하사한 酪茶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정조에게 '東藩繩美' 御書 편액을 하사한 것이나, 使臣, 譯官, 從人뿐만이 아니라 驛卒과 刷馬 · 驅人에게도 상을 내린 것 역시 우대조치라 할 수 있다.[23]

심양 문안사에 대한 건륭제의 대우를 살펴보면 일부는 전례에 따른 것이었으나 다른 것은 전례가 없는 우대였다고 할 수 있다. '東藩繩美' 御書 편액[24] 하사의 경우 황제의 우대를 보여주는 조치이기는 하나 이미 전례가 있었다. 숙종 29년(1703) 청 칙사가 강희제의 어필 "藩封世守, 柔遠恪恭"을 조선에 가져온 일이 있으며[25] 영조 연간에도 심양 문안 정사 趙顯命이 건륭제의 어필 편액 '式表東藩'을 가지고 귀국한 일이 있었다.[26] 이번 숭정전에서 거행된 조참례에 조선의

22) 『正祖實錄』 권6, 정조 2년 8월 26일 癸未.

23) 『正祖實錄』 권6, 정조 2년 9월 11일 丁酉.

24) 『淸實錄』에는 이때 하사한 편액이 '東藩濟美'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淸實錄』 高宗實錄(1986, 北京: 中華書局) 권1065, 건륭 43년 8월 25일 壬午, 244면. 그러나 光緖 『淸會典事例』(1991, 北京: 中華書局) 권507, 禮部 218 朝貢, 866면에는 '東藩繩美'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淸實錄』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숙종 29년(1703) 청 칙사가 가져온 강희제의 어필("藩封世守, 柔遠恪恭")에 대해서는 김우진, 2020 「1703년 강희제의 어필을 둘러싼 조선의 정치적 파장과 숙종의 대응」 『한국실학연구』 40 참조. 孫衛國, 2018 『從「尊明」到「奉淸」: 朝鮮王朝對淸意識的嬗變(1627-1910)』(2018,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193면에도 이 일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온다.

26) 『淸實錄』 高宗實錄 권201, 건륭 8년 9월 25일 甲辰, 581면; 光緖 『淸會典事例』 권507, 禮部 218 朝貢, 864면. 사실 청 황제가 조공국에 어필을 내리는 관행이 처음 시행된 대상은

정사와 서장관이 참석하여 황제가 하사한 酪茶를 마신 것도 주목된다. 황제가 사신에게 茶를 하사하는 것도 물론 우대조치였지만 이미 1743년 심양 문안사로 황제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한 조현명이나 1754년 심양 문안사로 황제의 연회에 참석한 兪拓基에게도 베풀어졌던 대우였다.[27]

하지만 건륭제의 이번 문안사행 대우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대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과거에는 서장관의 경우 심양에서 황제 주최 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조참례 이후 개최된 茶禮에 참석하여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청조의 관원들도 이를 '특별한 은전'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28] 또한 이번 문안 정사 이은이 건륭제와 나눈 대화는 영조 연간에 두 차례 파견된 문안 정사들이 황제와 나눌 수 있었던 대화에 비해 상당히 길게 전개되었다. 황제가 사신에게 건네는 말의 유무, 장단은 황제의 사신, 나아가 사신을 파견한 국왕에 대한 우대 여부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는 문제였다. 사신, 역관에 상을 주거나 從人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있는 일이었으나 驛卒, 刷馬, 驅人등 139명 모두를 闕庭으로 불러들여 상을 지급한 것은 전례 없던 일이었으며 후에 조선 조정도 이를 '格外'로 평가하고 謝恩表文 작성에 반영하기도 하였다.[29]

그렇다면 청이 이번 심양 문안사행을 이렇게 특별히 우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때 심양에서 조선 사신이 보았던 건륭제의 상유에서 찾을 수

조선이 아니었다. 강희 21년(1682) 청은 칙사를 琉球에 보내 국왕을 책봉했는데 이때 "中山世土" 네 글자 어서를 하사하였고 강희 22년에는 칙사를 安南에 보내 국왕을 책봉하면서 "忠孝守邦" 어서를 하사한 바 있었다. 옹정 연간에도 청은 유구국, 안남국, 섬라국 사신이 조공 왔을 때 어서를 하사하였다. 光緖『淸會典事例』권506, 禮部 217 朝貢, 859-863면.

27) 趙顯命,『歸鹿集』(임기중·부마진 편, 2001『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燕行日記, 9월 25일 기사, 175면;『淸實錄』高宗實錄 권201, 건륭 8년 9월 25일 甲辰, 579면; 兪拓基,『知守齋集』(임기중 편, 2001『燕行錄全集』38, 동국대학교출판부) 雜識 瀋行錄, 147-148면. 조현명의 사행일기에 대한 연구로는 김일환, 2019「심양문안사 조현명의 사행 일기 연구」『동악어문학』79 참조.

28) 1743년의 경우에는 문안 정사만 황제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서장관은 품질이 낮아 참석할 수 없었다. 趙顯命,『歸鹿集』燕行日記, 9월 25일 기사, 175면.

29)『承政院日記』1427책, 정조 2년 9월 15일 辛丑.

있다. 이 상유에서 건륭제는 금년의 경우 아직 황태후의 상을 치룬지 27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유로 盛京에서 宴禮를 거행하지 않기에 미리 조선에 알려 사신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조선 국왕이 '感戴', 즉 황제를 공경히 받드는 마음이 커서 굳이 사신을 보내 황제를 영접하여 정성을 공순하게 보여주었으니, 과거 자신의 치세 기간 있었던 두 차례의 심양행 전례 때보다도 더욱 우대하여 조선에 상을 내려 주도록 하였음을 밝혔다.[30] 다시 말해 건륭제는 자신이 사신을 파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문안사를 파견한 정조의 마음에 감동하여 더욱 우대하여 상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심양 문안사 이은 일행에 대한 건륭제의 우대는 조선 조정에 충분히 전달되었다. 정조는 이은의 심양 장계가 도착한 9월 11일 당일에 즉각 사은사 파견을 결정하였고 그날로 河恩君 李垙을 정사로 하는 사은행을 인선하였다.[31]

3) 東巡 진하 외교의 시도

이처럼 정조는 즉위 직후 사신 파견을 통해 적극적 대청 외교를 전개해가고 있었다. 먼저 그 파견의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던 진주사를 별사로 파견하여 건륭제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어서 청이 보낼 필요가 없다는 문안사 파견을 강행하여 건륭제를 더욱 감동시켰던 것이었다.

청에 사대의 정성을 보여 우호적 양국 관계를 이끌어내려는 정조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앞서 정조 2년 9월 11일 사은행 파견이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정조는 9월 23일 이 사행의 명칭을 단지 사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륭제의 조릉 알현을 축하하는 進賀도 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다음날인 9월 24일 대신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조는 "謝恩使가 매우 급하니 빨

30) 『正祖實錄』 권6, 정조 2년 9월 11일 丁酉. Wang Yuanchong은 건륭 연간 만주족의 청제국을 中華로 위치짓기 위해 황제의 덕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가 조선을 비롯한 조공국들에 시행되었다고 강조한다. Wang Yuanchong,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2018,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75-85.

31) 『承政院日記』 1427책, 정조 2년 9월 11일 丁酉.

32) 『承政院日記』 1428책, 정조 2년 9월 23일 己酉.

리 보내야 한다. 그런데 황제가 還都한 이후에 축하하는 예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이번 사행이 진하를 겸해도 될 듯한데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황제의 조릉 방문 축하를 명분으로 사은사에 진하사까지 겸부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33] 그러나 이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은 분분히 나뉘었다. 영의정 김상철은 앞서 주문 위식을 사과하기 위한 진주사 파견과 이후 문안사 파견을 적극 주창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만약 황제가 환도한 이후에 사신을 파견한다면 마땅히 진하를 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도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 저 나라가 만약 아직 환도하기 전인데 왜 미리 진하를 하느냐고 한다면 트집이 잡히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황제가 심양에서 북경으로 환도한 이후라면 마땅히 진하해야 하지만 아직 환도 여부도 모르는데 진하사를 겸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좌의정 徐命善은 "陳賀는 환도한 것을 안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使行이 들어갔을 때 황제는 이미 환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진하를 겸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사행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황제가 환도해 있을 것이므로 진하사를 겸하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정조의 뜻에 찬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우의정 鄭弘淳은 "詔書를 반포하지 않았기에 謝恩表와 陳賀表를 겸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서를 반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정조 2년 이전 조선의 문안사 파견과 뒤이은 진하사 파견의 전례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릉을 전알하러 심양으로 행차한 청 황제가 다시 북경으로 환도한 이후 조선이 문안사에 이어 進賀使를 추가로 파견하는 것은 전례가 있는 일이기는 했다. 위의 논의가 있었던 정조 2년(건륭 43년) 이전 조선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심양에 문안사를 파견하였는데 문안사 이후 진하사의 파견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이하 진하사 파견에 대한 9월 24일의 논의는 모두 『承政院日記』 1428책, 정조 2년 9월 24일 庚戌 기사 참조.

a. 강희 10년(현종 12년) 10월 문안사 파견. 강희 11년 6월 진하겸사은사 파견. 진하의 대상은 황제의 조릉 배알. 청에서 展謁園陵詔 반포.[34]
b. 강희 21년(숙종 8년) 2월 문안사 파견. 진하사 파견 안 함.[35]
c. 강희 37년(숙종 24년) 7월 문안사 파견. 진하사 파견 안 함.[36]
d. 건륭 8년(영조 19년, 계해년), 7월 문안사 파견, 건륭 9년 정월 진하겸사은사 파견. 진하의 대상은 황제의 조릉 배알. 청에서 展謁園陵詔 반포.[37]
e. 건륭 19년(영조 30년, 갑술년) 7월 문안사 파견, 진하사 파견 안 함.[38]

다시 말해 정조 2년 이전 조선에서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문안사를 파견하였는데 문안사 파견에 이어 황제의 조릉 방문을 진하하는 진하사를 파견한 경우는 a와 d, 모두 두 차례뿐이었으며 이 두 경우 모두 청이 황제의 심양 조릉 방문을 포고하는 '展謁園陵詔'라는 조서를 조선에 반포한 경우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청에서 '展謁園陵詔'를 반포하지 않았기에 조선으로서는 진하사를 파견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며 우의정 정홍순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자 정조는 "이번에 사은사를 들여보내는데 황제가 만약 다시 조서를 내린다면 내년에 또 사신을 보내야 하니 내 뜻은 이번 자문에 진하표를 겸해서 보내고 사행의 도착이 만약 황제가 환도하기 전이라면 단지 사은표만 올리면 좋을 듯하다는 것이다"라 해명하였다. 즉, 일단 사신이 진하표문을 사은표문과 함께 가지고 가되 북경 도착 후 아직 황제가 환도하지 않았다면 단지 사은표만 올리면 되고 황제가 이미 환도한 이후라면 진하표도 아울러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설령 황제가 이후 조서를 반포한다고 해도 조선이 다시 진하사를 파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정조는 여기서 자신의 제안을 향후 조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굳이 황제의 반조가 없더라도 일단 환도한 이후라면 진하할 수 있다는 정조의 주장은 사실 조선의 사대 정성을 청에 보여주려 했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조는 반조 없이 동순

34) 『同文彙考』(國史編纂委員會編, 한진인쇄공사) 補編 卷7, 使行錄, 17b; 卷9, 進賀, 29b-30b.
35)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21a.
36)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26b.
37)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41b; 卷13, 進賀, 30a-31b.
38)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45a.

을 진하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로 진하를 진행하려 했던 것이었다.

정조는 이어 앞서 영조 연간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심양 문안사를 보냈던 계해년(1743)과 갑술년(1754)의 詔勅謄錄을 가져다 참고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살펴본 김상철은 "계해년에는 詔書를 天下에 반포하였기에 진하사가 있었고, 갑술년에는 조서 반포가 없었기에 진하하지 않았습니다"라 하였다. 위에서 말한 d와 e의 경우를 말한 것이고 조서를 반포한 경우에만 진하사를 보낸 전례를 따를 것을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조는 "이번에는 皇筆을 頒賜하였다"라며 다시 한번 진하사 파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상철은 "皇筆은 謝恩할 수는 있지만 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정조의 의견을 다시 반박하였다.

정조는 대신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였다. 대신 가운데 知中樞府事 具善復만은 "(사대를) 曲盡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 진하를 兼送하는 것이 완전히 갖춘 것이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진하사를 겸부하는 것이 더욱 사대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도리라는 논리로 정조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신료들은 아직 청이 조서를 반포하지 않았다거나, 황제의 환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진하사 겸부를 반대했다. 호조판서 具允鈺, 도승지 홍국영은 아직 頒詔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知中樞府事 李重祜, 병조판서 李徽之, 좌승지 鄭民始는 황제의 미환도를 이유로 반대했다. 副司直 柳戇은 사은표와 진하표를 모두 작성해 가지고 가서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만약 진하표를 올리지 않게 되면 방물과 함께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였다. 이 논의의 방점을 찍은 것은 홍국영이었는데 그는 "이번 봄 별사를 보낼 때 여러 신하들의 논의는 모두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소신만 홀로 보낼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진하 논의의 경우 신의 뜻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 하였다. 홍국영은 정조 2년 봄에 주문 위식을 사과, 해명하기 위해 채제공이 이끄는 사신단이 건륭제에게 환영받아 성공했던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한편, 그렇게 지난번 적극적 사신 파견을 주장했던 자신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홍국영은 결국 조서 반포 없이 동순을 진하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신하들이 진하사 파견에 반대하고 측근인 홍국영조차 반대의 뜻을 표하자 정조는 "그렇다면 단지 사은사만 보내는 것으로 정해도 된다"라며 결국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논의를 통해서 정조가 건륭제의 동순 진하 외교를 펼치려 시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청이 황제의 조릉 알현 조서를 반포한 것도 아니었고 또 황제의 환도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지만 정조는 적극적인 사신 파견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조 2년 정조의 건륭 동순 진하 외교 시도는 일 년 뒤 펼쳐진 건륭 칠순 진하와 함께 사대의 정성을 보여 우호적인 조청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조 즉위 초년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번에 진하사 겸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때 정조가 제안한 방식, 즉 일단 사신의 공식 명칭에 진하를 붙이지 않은 채 진하표문을 지니고 북경에 가서 상황을 보아 진하표를 제출하는 방식은 결국 건륭 칠순 진하를 위해 이듬해 연말 북경에 도착한 黃仁點 사행에 의해 실행되게 되었다. 이번 정조의 동순 진하 외교가 성사되지 않은 데에는 조서 반포가 없는데 진하사를 보낸 전례가 없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후술하듯이 이듬해 건륭 칠순 진하 논의 과정에서는 영의정 김상철을 중심으로 전례를 무리하게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동순 진하 실패의 경험이 그 필요성을 증가시켰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정조 2년 하은군 이광을 정사로 하는 사은행이 파견되었다. 이 사행 가운데 정사 이광은 귀국 도중에 사망하였고 부사 尹坊과 서장관 鄭宇淳은 이듬해인 정조 3년 2월 7일 돌아와 복명하였다. 정조는 "問安使가 아니라 謝恩使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문안사는 사실 진하사의 오류로 보인다. 사은사에 진하사를 겸하게 하려 했던 자신의 의도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정조는 진하를 하지 않고 단지 사은만 한 조선의 결정에 대해 청 측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해 했던 것이다. 부사 윤방은 조선이 진하하지 않은 것을 청 측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오히려 조선이 별사를 파견하여 사은한 것만을 청 측이 높게 평가하여 매우 정성스럽게 조선 사신을 접대했다는 것이었다.[39] 정조는 사신 파견에 대한 청조의 반응에 무척 신경을 썼던 것이다.

4) 건륭 칠순 진하 논의의 전개

정조의 적극적 대청 외교 정책은 정조 3년 10월 출발한 三節年貢行 편에 이듬해 있는 건륭제의 칠순을 미리 축하하는 진하표문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조치로 귀결되었다. 이 진하표문을 준비하게 된 경위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본고에서는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한다. 정조 3년 4월 4일 영의정 김상철은 정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사신의 말을 듣건데 황제가 내년에 나이가 70이 된다고 하는데 비록 경축하지 말라는 詔가 있기는 했지만 저 나라 뭇 사람들의 의견[彼中物議]이 모두 진하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한 表로 진하하는 의절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내년 8월 황제의 생일까지 기다려 비로소 別使를 파견한다면 아마 지나치게 늦는 것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년 8월까지 기다린다면 과연 너무 늦을 것이다." 김상철은 말하기를 "저 나라의 진하는 이미 歲初에 거행하니 우리나라가 표로 진하하는 것도 8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초에 사신을 별도로 파견한다면 正使(동지사)와 別使(진하사)를 동시에 보내게 되니 또한 불편한 점이 많게 될 것입니다. 신의 뜻은 冬至正使가 (진하) 別使를 겸하게 하되 진하에 더 중점을 두며, 方物等의 의절은 수를 늘려 添封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또한 강희의 나이가 70살이 될 때 애당초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표로 진하한 일이 없지만 근래의 일은 대체로 전례만을 묵수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상의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40]

이 대화는 조선의 조정에서 건륭제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지사, 즉 삼절연공행이 진하표를 가져가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건륭제의 칠순 생일은 이듬해인 건륭 45년(정조 4년) 8월 13일이었지만 조선에서는 훨씬 이른 시기인 정조 3년 4월 4일 이미 대응 조치를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건륭제는 자신의 칠순을 특별히 축하할 필요가 없다는 명을 이미 여러 차례 신료들에게 내린 바 있었고[41] 이 사실은 위에서 김상철이 말하듯 사

39) 『承政院日記』 1435책, 정조 3년 2월 7일 壬戌.

40) 『承政院日記』 1439책, 정조 3년 4월 4일 己未.

41) 건륭제는 1778년 여러 차례에 걸쳐 1780년 칠순 만수절에 내외 대신들이 공물을 진상하지 말고 慶典을 열자고 요청하지도 말라고 명한 바 있었다. 『淸實錄』 高宗實錄 卷1067,

신을 통해 이미 조선에 전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에서는 대청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청 측의 여론을 미리 탐지한 뒤 그것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건륭제의 만류에도 불구, 신료들이 칠순을 진하하는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청의 여론이 사신을 통해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고 이에 김상철은 조선도 진하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진하표 제출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문제였다.

건륭제의 생일은 8월에 있었지만 청에서는 정월 초하루에도 황제의 칠순 진하를 할 것이기에 우리나라 역시 이때에 맞추어 진하표를 올려야 한다고 김상철은 건의하였다. 정조 역시 8월에 맞추어 진하를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진하표를 연말에 파견하는 동지사에 겸부시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사를 파견하여 올릴 것인지가 문제였는데 김상철의 의견은 바로 전자였다. 연말연초 비슷한 시기에 동지사와 진하사를 동시에 파견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편하니 동지사가 진하사를 겸하게 하되 중점을 진하에 두고, 원래 가지고 가는 방물에 진하 방물을 추가해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는 건의하였다.

김상철은 또한 이번에 칠순 진하를 위해 특별히 진하사를 파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과거 강희제의 칠순이 다가올 때 조선에서 진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칠순 진하사를 파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김상철이 '근래의 일'이라 한 것은 당시의 조청관계가 이보다 약 육십년 전인 강희 말년의 양국 관계에 비해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가 개선되어 양국 모두 우호적 조치를 상호 취하고 있던 상황을 지칭할 것이다. 그렇기에 강희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칠순 진하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상철은 4월 25일 칠순 진하사 파견 문제에 대해 다시 정조에 보고하였다.

槐院[승문원] 文書를 가져다 검토해 보니 옛날 계묘년 강희가 칠십 세가 되는데 이해 3월 咨文이 나와 (우리로) 하여금 別使를 보내지 말도록 하였기에 冬至兼進賀

건륭 43년 9월 30일 丙辰, 288면; 卷1068, 건륭 43년 10월 3일 己未, 294면; 卷1069, 건륭 43年 10월 26일 壬午, 328면; 卷1070, 건륭 43년 11월 2일 戊子, 341면.

使가 들어갔습니다. 내년 또한 황제가 칠십이 되는 해이니 冬至使行에 약간의 방물을 겸부해서 보낸다면 좋을 듯합니다. 상께서 "알았다"고 하셨다.[42]

정조의 추가적 검토 지시에 김상철은 승문원 문서를 검토해 과거 강희제가 칠순이 되는 해였던 계묘년(1723, 옹정 원년, 경종 3년)의 전례를 확인해 보았던 것이었다. 그는 계묘년 3월 청이 자문을 보내와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별사를 보내지 말도록 하였기에 진하별사를 보내지 않고 대신 동지사에 진하사를 겸부해서 보냈다고 하며 이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동지사에 진하사를 겸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계묘년인 1723년 황제의 생일인 3월 18일에 강희제가 칠순을 맞을 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희제는 사실 이때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전해 11월 13일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강희제의 칠순을 진하하는 별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자문을 계묘년 3월 청이 조선에 보내왔고 그로 인해 그해 연말 강희제의 칠순 축하 임무를 겸부한 冬至兼進賀使를 청에 파견하였다는 김상철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사실 강희제의 칠순을 한 해 앞둔 경종 2년(1722) 당시 조선 조정에서 자발적으로 황제의 칠순을 경하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논의한 흔적은 사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강희제가 사망하기 약 보름 전인 10월 27일 이듬해 황제의 성절을 미리 축하하는 성절표를 지니고 서울을 출발한 사행의 명칭도 '謝恩陳奏兼三節年貢行'이었으며 '진하'라는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43] 즉 황제의 칠순을 특별히 진하한다는 것은 이번 사행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행이 지참한 聖節表는 청에서 미리 지정해준 양식에 따라 쓴 일반적인 표문이었으며 강희의 칠순을 경축하는 특별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44] 다만 강희제가 사망한 뒤 부고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청의 칙사가 조선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북경 도착 후 성절표에 '강희 62년'이라 고쳐 적어 청에 제출한 것이 유일한 특이점이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청의 禮部는 조선 사

42) 『承政院日記』 1440책, 정조 3년 4월 25일 庚辰.

43)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33b; 『承政院日記』 543책, 경종 2년 8월 29일 壬午; 547책, 경종 2년 11월 6일 丁亥.

44) 『同文彙考』 原編 卷25, 節使, 4b. "文同乙酉頒式."

행이 서울을 떠난 지 한 참 뒤에 강희제의 칠순 萬壽大慶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표문양식인 '賀萬壽表式'을 조선에 보내왔다. 청 예부가 표식과 함께 보낸 자문에 따르면 조선의 삼절연공행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이 표식에 맞추어 진하 표문을 작성하여 청에 보내고, 이미 출발했다면 별도로 관원을 급히 청에 파견하여 12월 말까지는 동지, 원단 표문과 함께 이 진하표를 예부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도저히 12월 말까지 이 표문을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황제의 칠순 성절인 이듬해 3월 18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예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5] 이 자문은 강희제가 붕어하기 이틀 전인 11월 11일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11월 30일 조선의 義州에 도착했고 즉시 조정에 보고되었다.[46] 이 자문을 검토한 조선 조정은 12월 10일, 이미 강희제가 붕어한 소식을 알고 있기에 칠순 경하를 위한 표문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취지의 자문을 작성하여 황제의 붕어를 위로하기 위한 陳慰使行 편에 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47] 계묘년 1월 6일 작성된 이 자문은 '萬壽表因皇帝崩逝停止咨'라는 이름으로 『同文彙考』에 수록되어 있는데[48] 이 자문을 청에 제출할 陳慰兼進香行은 1월 11일 북경을 향해 출발하였다.[49]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 조정은 강희제의 칠순을 특별히 진하하는 표문을 청에 제출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계묘년 3월 청이 자문을 보내와 조선으로 하여금 강희제 칠순을 진하하기 위한 별사를 파견하지 말라고 했고 이로 인해 별사 대신 동지겸진하사를 보냈다는 김상철의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김상철의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먼저, 강희제가 사망하여 황제의 칠순을 진하할 수 없게 되자 조선이 칠순 진하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청에 알렸는데 뒤늦게 청에서 "별사를 파견하지 말라[勿送別使]"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에서도 당시 조선의

45) 『同文彙考』 原編 卷35, 表箋式, 5b-6a; 『通文館志』 卷10, 紀年續編, 3a.

46) 『同文彙考』 原編 卷35, 表箋式, 6ab.

47) 『承政院日記』 548책, 景宗 2년 12월 10일 辛酉.

48) 『同文彙考』 原編 卷35, 表箋式, 6ab. 이 자문은 『通文館志』 卷10, 紀年續編, 4b에도 수록되어 있다.

49)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33b.

진하사 파견을 청이 면제해 주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대신 계묘년 3월 즈음 조선과 청 사이에 논의되고 있던 사안은 강희제가 아닌 새로 등극한 옹정제의 만수성절 축하 문제였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성절 축하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50]

순치 원년 청이 조선에 대해 동지, 정조, 성절의 倂貢을 허락한 이후 조선은 연말에 북경에 도착하는 삼절연공행을 통해 순치제의 생일인 1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서 이른 성절 축하를 하였다. 강희제의 경우 생일이 3월 18일로 순치제보다 늦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했다. 전년도 연말 북경에 도착하는 삼절연공행을 통해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미리 성절 축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성절에 맞추어 별사를 따로 파견해야 하는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선 조정은 강희제가 즉위한 현종 2년(1661) 7월 齎咨官을 청에 파견하여 성절의 병공을 다시 요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다. 강희 연간에도 순치 연간처럼 연말에 북경에 도착하는 삼절연공행을 통해 성절에 대한 이른 축하를 계속해 나가게 된 것이었다. 강희제를 계승한 옹정제의 생일은 강희제의 생일보다 훨씬 늦은 10월 30일이었지만 조선 조정은 강희제 즉위 때와 마찬가지로 옹정제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종 3년(옹정 원년) 2월 9일 재자관 洪萬運을 청에 파견하여 전례에 따라 성절, 동지, 원단 표문을 연말에 한꺼번에 제출[三節合倂]하겠다고 요청하였다.[51]

조선의 위 요청이 담긴 자문을 받은 청 예부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9일 옹정제에 제본을 올려 보고하였다. 이 제본에 따르면, 그해는 옹정 원년이므로 조선은 황제의 성절에 맞추어 특별히 사신을 파견해야 하며[理宜特遣使臣], 사신은 9월말까지 북경에 도착하여 성절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옹정 원년 동지표, 옹정 2년 원단표, 옹정 2년 성절표를 옹정 원년 12월 말까지 연공과 병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로는 매년 이 예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52] 즉 예부에서는 옹정 원년의 경우 조선은 특별히 10월에 있는 황제의 성절

50) 이하 조선의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의 만수성절 축하에 대해서는 구범진, 2014 앞의 논문, 223-225면을 참조.

51) 『同文彙考』 原編 卷25, 節使, 「報三節合倂咨」, 5b;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33b.

에 맞추어 別使를 파견해야 하고 그해 연말부터는 조선이 삼절병공을 통해 이듬해 10월에 있는 황제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부의 이 제본에 대해 옹정제는 4월 19일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렸다.

> 朝鮮國이 바치는 萬壽表文과 貢物은 반드시 9월 말까지 京師에 올 필요는 없다 [不必於九月內來京]. 例에 따라 12월 안으로 年貢과 함께 올리도록 하라.[53]

다시 말해 옹정제는 예부의 건의를 따르지 않고 조선이 황제 성절 축하를 위한 별사를 파견할 필요는 없으며 이전의 관행대로 12월에 삼절연공행을 보내 성절을 축하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었다. 옹정제는 자신의 생일보다 약 두 달 늦게 조선이 성절을 축하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었다. 청 예부는 조선의 三節合併 요청에 대한 예부의 논의와 이에 대한 옹정제의 유지를 기록한 자문을 4월 28일 작성하여 재자관 홍만운 편에 조선으로 보냈고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6월 23일 받아볼 수 있었다.[54] 옹정제의 즉위 후 첫 번째 생일을 별사를 파견하여 축하할 필요가 없었기에 조선 조정에서는 그해 10월 30일 進賀謝恩兼三節年貢行을 파견하여 성절표를 포함한 여러 표문과 자문을 청 예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행의 명칭에 '進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청에서 강희제에게 謚號를 올린 것을 축하하는 진하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이었다.[55]

위에서 설명한 계묘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이 그해 조선에 "勿送別使"하라고 했다는 김상철의 말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때의 '別使'란 강희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한 별사가 아니라 옹정제의 즉위 후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별사를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청이 "勿送別使"하라고 했다고 김상철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위 옹정제의 유지에 나오는 "不必於九月內來京"일 것이다. 즉 계묘년 옹정제 성절 축하 별사를 파견하지 말라고 한 청의 지시를 김상철은 강

52) 『同文彙考』 原編 卷25, 節使, 「禮部知會照舊合併咨」, 6b-7a. 구범진, 2014 앞의 논문, 226면.

53) 『淸實錄』 世宗實錄(1986, 北京: 中華書局) 卷6, 옹정 원년 4월 19일 戊辰, 136면; 『同文彙考』 原編 卷25, 節使, 「禮部知會照舊合併咨」, 7a.

54) 『同文彙考』 原編 卷25, 節使, 「謝三節合併表」, 11a.

55) 『同文彙考』 原編 卷12, 進賀, 「賀尊謚表」, 20a.

희제 칠순 진하 별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또 조선이 그해 별사 대신 파견했다는 冬至兼進賀使란 10월 30일 출발한 進賀謝恩兼三節年貢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사행 명칭에 포함된 진하의 대상은 강희제의 칠순이 아니라 강희제의 시호 추존이었다. 김상철은 강희제의 시호 추존 진하를 강희제의 칠순 성절 진하로 바꾸어 정조에 말했던 것이었다.

계묘년이 본래 강희제가 칠순을 맞이하게 될 해였고 또 비록 청의 지시가 있긴 했으나 조선이 강희제 칠순 진하표를 제출할 뻔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강희제의 붕어로 인해 조선이 실제로 강희제의 칠순 진하를 하지 못했기에 조선에는 건륭제의 칠순 진하사 파견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전례가 없었던 셈이었다. 청나라 황제의 칠순을 위해 전례도 없이 진하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정조 즉위 초기 여전히 강고했던 화이론적 이념 지형(후술)을 고려해 본다면 그만큼 정조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청에서 강희제의 칠순 때처럼 진하 표문 제출을 지시했다면 조선의 군주로서는 오히려 이념적 부담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건륭제 칠순 진하의 경우 황제가 자신의 칠순을 특별히 경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반포한 상태였다. 아무리 청나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이 자발적으로 진하사를 파견하는 것은 부담이 없을 수 없는 조치였고 이에 전례가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김상철은 계묘년에 있었던 일련의 외교적 사례들[56]을 엮고 왜곡하여 마치 강희 연간에도 칠순 진하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정조에게 보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김상철이 과거 강희제 칠순을 앞두고 조선에서 표를 올려 진하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정조에게 말을 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러한 왜곡을 김상철의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김상철이 정조와 사전 공감대를 미리 형성한 뒤 건륭제 칠순 진하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가공의 전례'를 교묘하게 만들어 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6)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희제의 칠순을 진하할 뻔했던 일, 옹정제가 그해 자신의 성절 축하 별사를 파견하지 말라고 한 일, 연말에 강희제의 시호 추존을 경하한 일을 지칭한다.

앞서 건륭제의 동순 진하를 추진했던 정조가 조서 반포 없이 사신을 파견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포기했음을 생각해 본다면 김상철의 전례 창출 작업은 청 황제의 칠순 축하 사신 파견에 대해 예상되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까지 전례를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 황제 칠순 진하라는 외교적 조치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을 가능성을 정조와 김상철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기도 할 것이다. 후술하듯 당시 조정의 여론은 비록 청이 매우 우호적으로 조선을 대접해 준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청을 이적시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청 황제 칠순 진하라는 외교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전례 만들기 작업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철의 전례 만들기 작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조 3년 6월 28일 김상철은 다음과 같이 정조에게 말하였다,

> "저 나라 사람들의 논의[彼國物議]를 들었는데 元朝를 중시하지 않고 生日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일찍이 康熙의 生日에 때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서[及期送使] 方物을 가지고 가 납부했으니 내년 8월에도 예전처럼 사신을 보내면 될 듯한데[似如前送使] 아직 咨文으로 알려온 일은 없습니다. 이번 冬至使가 저들의 여론을[彼中物議] 탐지하게 하고 (내년 성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논의해 결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께서 "좋다"고 하셨다.[57]

여기서 김상철은 조선의 사신 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한번 청나라의 여론을 인용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정조 2년 3월 3일, 정조 3년 4월 4일에도 김상철이 '피중물의' 혹은 '피중소식'을 인용하며 대청외교의 방향을 제안하였던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김상철이 파악한 청나라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청나라에서 황제의 생일을 경축할 때 정월 초하루에 경축하는 것보다는 황제의 생일 당일 경축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동지사 편에 황제 칠순을 미리 진하하는 것으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듬해 8월 황제의 생일 당일에 맞추어 칠순을 진하하는 사신을 또다시 파견할 필요성이

57) 『承政院日記』 1443책, 정조 3년 6월 28일 庚辰.

있다는 것이었다. 칠순 성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청 측이 아직 자문을 보내와 공식적으로 알려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파견되는 동지사가 다시 청 측 인사들의 여론을 탐지해 오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칠순 당일에 맞춘 사신 파견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상철이 이번에도 강희 연간의 전례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강희 연간에는 '황제의 생일에 맞추어' 사신을 보냈으므로[及期送使] 내년 8월 건륭제의 생일에도 '예전처럼 사신을 보내면 될 듯하다[似如前送使]'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강희 연간에는 황제의 생일에 맞추어 조선의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삼절연공행은 강희 연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조선을 출발하였기에 매년 12월에 북경에 도착했다. 따라서 강희제의 생일인 3월 18일보다 거의 세 달 먼저 성절표를 청 측에 제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른 성절표 제출이 당시 조정 인사들에게 결코 '황제의 생일에 맞춘' 것이 아니라 '미리 축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희제가 사망하고 옹정제가 등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경종 3년, 조선 조정에서는 옹정제의 생일이 10월 30일로 한 해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강희제 때처럼 매년 12월 북경에 도착하는 삼절연공행이 성절표를 미리 제출하여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때 논의에 참여한 공조판서 趙泰億은 강희제 때의 성절 축하 관행에 대해 "聖節賀表를 미리 동지사에 지참시켜 보내[預爲付送冬至使]"라거나, "삼월 성절표를 미리 동지사에 지참시켜[預付於冬至使]"라 표현하였다.[58] 즉 성절표는 12월에 제출하고 실제 황제의 생일은 3월에 있기 때문에 성절표를 생일보다 '앞서' 제출하였다고 분명히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預爲付送'이라는 인식이 김상철에 이르러 갑자기 '及期送使'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김상철은 약 삼 개월 앞선 강희 연간 성절 축하 관행을 '及期送使'라 표현하여 마치 강희제 때 생일에 맞추어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것처럼 말하며 억지로 '생일에 맞춘 축하'로 변모시킨 것이었다. 결국 앞서 말한 강희제 칠순 진하 전례 만들기에 이어 또 다른 무리한 전례 만들기 작업이라고 할 수

58) 『承政院日記』 549책, 경종 3년 1월 25일 乙巳.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조 3년 6월 28일까지 건륭제의 칠순 생일을 진하하기 위한 조선 조정의 대책은 이미 그 얼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 논의는 관련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해 10월 29일에는 '三節年貢兼謝恩行'이 건륭제의 칠순 진하표문을 지니고 북경을 향해 출발했다.[59] 사신단의 명칭에서 '진하'가 빠진 것은 건륭제가 자신의 칠순을 진하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신료들에게 당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칠순 진하표문인 '賀皇上七旬表'를 가지고 가되 북경에서 상황을 보아 표문을 제출하도록 정조가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었다.[60] 이렇게 진하표문을 지니고는 가되 북경에서 상황을 보아 제출하도록 하는 외교 전략을 우리는 이미 건륭제의 동순 진하사 파견을 둘러싼 조정의 논의에서 본 바 있다. 그 당시에는 진하사가 성사되지 않아 이 전략이 시행되지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채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행의 정사 黃仁點은 북경 도착 직전, 황제가 강희제의 육순 만수절 전례에 따라 정월 초하루 특별히 恩詔를 반포하고 연회를 베풀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따라 북경에 도착한 이후 예부에 사행의 명칭을 '進賀謝恩兼冬至使'로 변경하여 알리고 칠순 진하표 역시 제출하였다.[61] 또한 황인점 등은 다시 한번 淸人들로부터 정보를 탐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 비록 칠순을 경하하지 말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긴 했지만 건륭의 칠순 성절을 앞두고 대신 및 독무들이 결국 진하를 요청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획득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의 건륭제 칠순 진하 과정은 영의정 김상철이 미리 구상했던 대로 흘러갔던 것이며 정사 황인점은 김상철이 구상하고 정조가 승인한 방침을 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황인점 사행의 진하표문 제출에 대한 건륭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후 정조와 건륭제 간 상호 우대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되었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이다.[62]

---

59) 『承政院日記』 1451책, 정조 3년 10월 29일 己卯;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52b-53a.

60) 『承政院日記』 1461책, 정조 4년 3월 18일 丁酉; 『同文彙考』 原編 卷15, 進賀, 9ab. 황인점 사행이 진하 표문을 별도로 준비해 간 뒤 현지 상황을 보내 제출했음은 구범진, 2014 앞의 논문, 232면 참조.

61) 『承政院日記』 1461책, 정조 4년 3월 18일 丁酉.

3. 정조 즉위 초기 조선 조정의 대청 인식

앞에서 즉위 초기 정조가 사행 파견을 통해 대청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나가려 노력했음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대청 외교의 전개는 정조 및 신료들의 화이관의 변화가 바탕이 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당시 정조와 신료들은 기존의 화이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외교적 차원에서만 우호적 조청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일까? 또 화이관과는 다른 층위에서 존재하는 청 제국의 번영과 청 황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면모를 보였을까?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정조 즉위 초기 조정 신료들이 지니고 있던 청 제국의 번영과 건륭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국왕과 신료들의 화이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앞서 설명한 김상철의 '가공의 전례' 창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사신의 청 현실 및 건륭제 평가

먼저 청에 사행을 다녀온 사신들의 복명 보고를 분석하여 청 제국의 현실 및 건륭제에 대한 평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陳慰兼進香行으로 청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正使 鄭尙淳, 副使 宋載經은 정조 1년 8월 27일 복명한 자리에서 청의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의 생업이 번창하고 민심은 안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백성들에게 과도한 요역을 부과하지 않는 '無事太平의 시대'라고 긍정적으로 정조에 보고하였다. 정상순은 또한 "황제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內服과 마찬가지로 여기어 사신의 요청만 있으면 들어주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건륭제가 외국인 조선을 청 내지와 동등하게 우대해 주었음을 강조하며 건륭제 사후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다면 조선에 대한 태도가 건륭제 때만 못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하였다.[63] 당시 조선에서 청이 안정과 번성을 구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 건륭제를 조선에 매우 우호적인 황제라고 인식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

62) 구범진, 2017 앞의 논문.

63) 『承政院日記』 1405책, 정조 1년 8월 27일 庚申.

데 정조 2년 건륭제가 조선이 올린 주문의 위식 문제를 지적한 일이 알려지자 조선 조정의 건륭제 평가는 일시적이나마 상당히 비판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정조 2년 3월 2일 우의정 徐命善은 황제 나이가 예순여덟이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 정조 역시 황제가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우려하였다.[64]

북경에서 문제가 된 주문을 제출하고 귀국하여 정조 2년 3월 29일 복명한 하은군 이광의 청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광에 따르면 청에서는 근래 처벌이 가혹해지고 爵賞이 남발되고 있으며 백성들이 과중한 토목공사 부담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청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직 위력으로 백성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65] 이날 정조가 측근인 홍국영과 나눈 대화를 보면 정조 역시 주문 사건으로 인해 건륭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아까 사신의 말을 들으니 건륭이 늙어서 요사이 점차 혼미해졌고 愛銀하는 癖이 특히 심해졌으며, 작은 일을 가지고 親王을 벌주고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여 지위가 낮은 자를 발탁해 쓴다고 하니 그 政令이 괴이하다 할 수 있다"고 하며 건륭제를 비판하였다. 이에 홍국영이 "政令이 전도된 것은 노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정조는 이번 奏文 사건 또한 "반드시 老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홍국영이 이번 일은 예전에 건륭이 조선을 상당히 우대해 주던 것과는 크게 다르니 괴이한 일이라 평가한 것을 보면,[66] 이번 일로 인해 건륭제가 조선을 매우 우대해 주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이 일시적이나마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다.

주문 위식 문제를 사과하러 진주사로 청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여 정조 2년 7월 2일 복명한 채제공의 건륭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 대체로 논하자면 건륭은 英傑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연로했고 평화로운 치세 또한 오래되어 안으로는 군대를 쓸 우려가 없고 海外로는 각

64) 『承政院日記』 1415책, 정조 2년 3월 3일 癸亥.
65) 『承政院日記』 1416책, 정조 2년 3월 29일 己丑.
66) 『承政院日記』 1416책, 정조 2년 3월 29일 己丑.

국이 복종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안일 속에서 교만이 생겨나고 편안 속에서 폐단이 일어났습니다. 정책과 법령은 엄하고 급한 것이 많으며 일을 할 때에는 대체로 모두 사치스럽고 교만합니다, 土木 공사로 재정을 탕진했고 遊觀하는 자취는 거의 온 天下에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라도 뜻에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번번이 잔혹한 형벌을 내리니 작년에는 또한 文字와 관련된 미세한 일로 大獄을 일으켜 漢人 士類들을 태반은 주륙하였습니다, 금지하는 법령을 많이 두어 學問과 관련된 저술이나 偶語(개인들이 모여 국사를 논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모두 重律에 걸리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로 인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67]

채제공은 건륭제를 영걸한 군주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건륭제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치세를 가져왔고 대외적으로도 각국이 조공을 바치는 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잘 이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채제공이 본 건륭제의 통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폐단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황제의 정책과 법령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잔혹한 형벌이 빈번히 시행되고 있었고 문자옥을 일으켜 한인 사대부들을 탄압했던 것이다. 아울러 황제는 사치스럽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재정을 탕진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천하 각지를 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규모 토목공사나 군주의 잦은 순행 같은 것은 조선 조정에서 흔히 망국의 원인으로 거론하던 요인들이었다.[68] 청의 현실적 성세와 안정을 인정하면서도 건륭제의 사치와 순행 등을 비난하는 논리는 영조 연간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69] 채제공의 건륭제 평가 역시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70]

하지만 정조 2년 채제공이 이끄는 진주사 사절 파견을 계기로 주문 글자를 둘러싼 양국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 해 파견된 심양 문안사를 건륭제가 우대해 주자 정조는 다시 건륭제가 조선을 매우 우대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정조 2년 11월 2일 정조가 "淸이 우리나라에 대해 극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67) 『承政院日記』 1425책, 정조 2년 7월 2일 己丑; 『正祖實錄』 권6, 정조 2년 7월 2일 己丑.

68) 『孝宗實錄』 권9, 효종 3년 11월 30일 戊戌; 『顯宗改修實錄』 권2, 현종 즉위년 10월 20일 丁未.

69) 연갑수, 앞의 논문, 53-54면.

70) 김창수에 따르면 1780년대 및 1790년대 조청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되자 조선 사신들의 건륭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한다. 김창수, 2016 앞의 논문, 87-91면.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71] 결국 정조 즉위 초기 주문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발생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국왕과 신료들은 건륭제가 조선을 매우 우대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 3년 3월 귀국한 三節兼年貢行 正使 鄭光漢 역시 건륭제의 통치에 대해 "정치와 법제에 비록 나이 들어 혼미한 바가 없지 않지만 대체로 나라의 기강을 모두 주관하여 한 가지 일도 흘려 버리는 것이 없으니 英明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조에게 평가하였다. 건륭제가 조선 주문의 글자를 트집 잡은 직후 정조와 신료들은 황제의 혼미함을 비판했었으나 이제 양국 관계가 다시 안정을 되찾자 건륭제의 통치 역량과 자질을 긍정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당시 청을 다녀온 사신들의 청 현실에 대한 인식을 대략 분류해 보면, 청이 태평을 구가하고 있다고 보거나 건륭제의 통치를 칭찬하는 긍정적 인식(정상순, 정광한), 청은 오직 무력으로 백성들을 탄압하여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광), 그리고 청의 번영은 인정하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안 요소가 차츰 등장하고 있다는 절충적 인식(채제공)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인식들은 돌발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화할 수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도 편차가 존재하는 대청 인식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에 대한 화이론적 시각

그런데 이보다 더 심층에 존재하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 대청 인식의 양상이 바로 화이론에 입각한 청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화이론적 관념에서 청을 이적 국가로 간주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다. 앞서 언급한 宋載經의 건륭제 평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송재경은, 북경에서 사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청의 하급 관리라 할 수 있는 序班들이 중국 역대 역사에 대한 건륭제의 평론을 자신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는데 그 평론이라는 것이 "元太祖가 中華衣冠을 채용해서 그 (몽고의) 本色을 상실했다"고 하는 식으로서 자신이 보기에 이는 '無倫之說'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72] 즉 원태조가 중화 복색을 채용한 것

71) 『承政院日記』 1431책, 정조 2년 11월 2일 戊子.
72) 『承政院日記』 1405책, 정조 1년 8월 27일 庚申.

을 비판한 건륭제의 평가는 송재경이 보기에 中華禮制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언사라는 것이었다. 송재경이 보기에 건륭제의 이 말은 청의 이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청을 이적시하는 발언은 정조 2년 陳奏使行의 서장관으로 북경을 다녀온 沈念祖에게도 보인다. 정조가 귀국한 심염조에게 청의 문물에 대해 물어보자 심염조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萬里의 中土가 모두 오랑캐[腥氈] 수중에 들어갔으니, 숭상하는 것은 城池와 甲兵이고 중시하는 것은 불교[浮屠]와 貨利이니 華夏의 文物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大成殿의 복도도 거리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되어 버렸고 簷廡는 황폐하여 무너졌으며, 뜰에는 잡초가 무성한데도 한 명의 유학자도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73]

여기에서 심염조가 묘사한 청의 문물은 완전히 夷狄의 그것이었다. 오랑캐 청은 군사력, 불교, 재화만을 숭상하는 국가이며 중화문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이적인 청 치하에서 유가 사상의 상징인 대성전이 전혀 중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청을 이적시하는 발언은 청에 다녀온 사신들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정조 즉위 초반 비록 청과의 우호적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 조정에서는 청을 이적시하는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정조 2년 12월 15일 宋時烈의 현손으로서 당시 성균관 祭酒로 있던 宋德相이 晝講 자리에서 정조에게 한 말은 엄격한 화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던 당시 조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때 송덕상은 정조에게 "오랑캐[虜]가 百年의 運을 지난 지 지금 이미 오래되었으니 조만간 반드시 王者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한 뒤 "오랑캐가 만약 쫓겨서 동쪽으로 온다면 우리나라에 (곡식이나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고 침해하는 것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라 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변경 방위를 강화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自强之策으로 제시하였다. "오랑캐의 운은 백년을 넘기지 못한

73) 『承政院日記』 1425책, 정조 2년 7월 9일 丙申; 『正祖實錄』 권6, 정조 2년 7월 9일 丙申.

다"는 말은 청이 건국이래 백 년을 훨씬 넘긴 영조 말년에 들어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는데,[74] 송덕상은 다시 이 말을 정조에게 상기시키며 청이 분명히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청의 붕괴 가능성과 조선의 자강책을 거론하는 송덕상에 대해 정조는 그의 말이 '深遠한 慮'라고 칭찬하였다.[75]

청을 이적시하는 인식은 앞서 건륭제의 통치를 英明하다고 칭찬한 정광한에게서조차 드러난다. 건륭제의 통치자적 자질을 긍정 평가하는 인식 아래에는 청을 여전히 이적시하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는 정조 3년 3월 30일 국왕과 정광한의 아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 정조: 청에도 볼만한 文治가 있는가?
> 光漢: 대체로 말해 財賦가 위이고 武力이 다음이며 文治는 末입니다.
> 정조: 太學을 보았는가?
> 光漢: 殿廡는 금빛과 푸른 빛으로 눈부시게 찬란하기는 하나 賢館과 學堂은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76]

정조가 청에도 문치적 요소가 있냐고 물은 것은 청의 정치와 사회에서 유교적 덕목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물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광한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청 제국은 유교적 덕목의 구현을 우선적 과제로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러한 목표와 대척점에 있는 것들, 즉 금전적 이익 추구 및 무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였다. 정조는 문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자감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정광한은 비록 외형적으로 잘 꾸며놓기는 했으나 그 부속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 실제로는 유가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조선에

---

74) 『承政院日記』를 검토해 보면 영조 즉위 이래 군신 간의 대화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던 '胡無百年之運' 혹은 '胡無百年'이라는 말이 영조 35년(1759) 4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영조 연간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의 붕괴를 바라는 조선 군신의 마음은 '황하가 맑아진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었는데 1763년 영조가 황하가 맑아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감을 표출한 적이 있기는 하였다. 구범진, 2021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 대청 외교와 '열하일기'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21세기북스, 45-60면.

75) 『承政院日記』 1432책, 정조 2년 12월 15일 辛未.

76) 『承政院日記』 1438책, 정조 3년 3월 30일 甲寅.

서는 유교문화의 상징인 국자감에 대해 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관심사였고 정광한 및 앞서 사신으로 다녀온 심염조의 결론은 공통적으로 청 문화의 이적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4월 1일 다시 한번 정광한, 그리고 그와 함께 사행을 다녀온 副使 李秉模를 입시시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정조의 청 문화에 대한 견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정조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 中原이 무너져 온 세상이 오랑캐[腥膻]가 되었으니 三代의 文物과 禮樂을 지금 비록 징험해 볼 수 없지만 혹 閭巷의 보통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볼만한 文章, 學術을 찾아볼 수 있는가?[77]

비록 건륭제가 조선을 극히 우대한다고 인정하고 정조 스스로도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청에 대해 국왕 스스로가 '오랑캐'라 지칭하고 중화의 문물과 예약이 현재 청에서 사라져 버렸다고까지 공언했던 것이다.[78] 정조는 여항의 일반인 가운데 그래도 문장과 학술을 잘해 중화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자 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한 정광한의 응답은 부정적이었다. 비록 남경 출신 儒士 가운데 문장을 잘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저들의 풍속은 오로지 武力만을 숭상하기 때문에 文治는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하였던 것이다. 이적 국가인 청은 오직 무력만을 숭상하기에 문치를 강조하는 중화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77) 『承政院日記』 1439책, 정조 3년 4월 1일 丙辰.

78) 사실 적극적 대청외교를 추진하던 정조 초년에도 재야 사인들은 여전히 청에 대해 오랑캐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었다. 정조 1년 4월 幼學들이 올린 연명상소에서 金尙憲의 精忠大節을 "夷虜들 또한 敬服한다"고 한 것이나 정조 3년 7월 全羅道 儒生들이 올린 상소에서 "虜運難窮"이라 하여 "오랑캐의 운수는 끝나기 어렵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정조 2년 12월 성균관 祭酒 송덕상이 '오랑캐의 백년의 운'을 거론하며 청이 망할 것을 대비해 조선이 자강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조에 건의한 것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정조 또한 청을 오랑캐라고 지칭한 경우도 있었다. 정조 3년 8월 남한산성을 방문한 정조는 "丙子年에 虜人들이 이 봉우리에 올라 대포를 발사했는가?"라 물었고 또 병자년 당시의 청군을 '敵人'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承政院日記』 1397책, 정조 1년 4월 15일 庚戌; 1445책, 정조 3년 7월 27일 己酉; 1446책, 정조 3년 8월 7일 戊午 참조.

멀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광한은 이어 “태학은 무너져 폐허가 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본래 士子들이 守護하는 일이 없고 북경 밖의 鄕校의 경우에는 무너진 채 방치되어 풀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북경의 태학이나 외지의 관학 모두 유학 교육의 거점이지만 이적 왕조인 청의 치하에서 그 유교문화의 전승과 보급은 단절되어 가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태학과 관련된 정조와 사신의 대화는 결국 청의 이적성을 강조하고 중화문명의 상실을 확인하려는 소재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3) 許衡 文廟 黜享 논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청 의식을 구체적으로 예제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정조 3년 7월 8일 송덕상은 정조에게 孝宗의 陵인 寧陵에서 祭享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祝文에 청의 연호를 사용하는 관행을 바꾸어 단지 干支만 사용할 것을 정조에 제안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오랑캐에 대한 치욕을 상기시키기 위해 南宋의 朱熹가 말하고 송시열이 강조한 ‘忍痛含冤’이라는 네 글자를 효종이 잊은 적이 없고 청을 항상 ‘오랑캐 나라[虜國]’라 칭했는데 제향에 청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79]

동시에 송덕상은 원대의 名儒였던 許衡(1209-1281)을 문묘에서 黜享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조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그 이유는 허형이 ‘被髮左衽之人’, 즉 원나라의 통치에 순응하여 이적인 원나라의 두발과 복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80] 송덕상의 주장은 허형을 둘러싼 과거 조선 조정 논의의 연장선 위에 있기에 이 논의에 대해 먼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형은 1209년 금나라 치하의 화북지방에서 태어났고 이후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부름으로 원 조정에 출사하였으며 원대 주자학을 계승, 발전시킨 공로로

79) 『承政院日記』 1444책, 정조 3년 7월 8일 庚寅; 『正祖實錄』 권8, 정조 3년 7월 8일 庚寅.

80) 정조 즉위년 충청도 유생들이 올린 상소에서도 허형을 비판하는 대목이 보인다. 허형이 중국의 백성이면서도 앞장서 오랑캐에 귀부했고 백성들이 被髮左衽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被髮左衽을 하고는 천하에 이를 제창해서 夷虜의 勢를 나날이 번창하게 했으니 그가 중화를 무너뜨린 죄가 극심하다는 것이었다. 『承政院日記』 1389책, 정조 즉위년 9월 26일 甲午.

元 武宗(1308-1311) 시기 元朝의 문묘에 종사된 인물이었다.[81] 또한 조선에서도 태종 12년(1412) 명나라 문묘제도의 예에 따라 그를 문묘에 모시게 되었다. 그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인식과 이적인 원조 치하에서 벼슬을 한 것을 비판하는 견해가 공존했다. 李珥(1536-1584)의 경우 후자로서, 허형이 오랑캐 조정에 출사한 것은 개인의 처신 차원에서 오점을 남기는 행위인 '失身'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가 본래 송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한 적이 없으므로 君臣義理를 저버린 '失節'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夷狄인 淸을 사대하게 되자 조선의 상황은 夷狄의 통치를 받게 된 원나라 시기 漢人들의 상황과 유사하게 되었다. 효종 연간 宋時烈은 허형에 대한 비판을 공론화하고 허형의 '失身'을 비판하며 그를 문묘에서 출향시킬 것을 효종에게 건의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효종 치세 당시 조정에 만연하던 친청적 분위기를 일소하고 북벌을 주장하기 위해 오랑캐의 통치에 순응한 허형을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82] 그러나 허형의 문묘 출향은 바로 반청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이 청에 누설될 경우 당시 위태로운 조청 관계 속에서 청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기에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효종의 붕어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허형 출향 문제는 숙종대인 1681년부터 시작된 문묘제도 개혁 때 다시 한번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송시열은 또다시 허형의 문묘 출향을 숙종에게 주장하면서 허형이 원나라에 출사한 것이 비록 '失節'은 아니나 '失身'한 것이라는 李珥의 평가를 인용하였고 '失身'이라 평가한 이유는 허형이 '內夏外夷', 즉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배척하는 이치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 허형이 주자학의 발전에 남긴 공적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기에 결국 허형의 문묘출향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잠복되어 있던 허형 출향 문제를 이때 송시열의 후손인 송덕상이 다시 정조에게 제기하였던 것이다.

---

81) 이하 허형에 대한 설명은 우경섭, 2013『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156-186면을 참조.

82) 우경섭, 위의 책, 171면.

효종의 陵에 청 연호 대신 干支를 사용하자는 주장, 그리고 원 조정에 벼슬하고 이적의 복식과 두발 양식을 받아들인 허형을 문묘에서 출향시키자는 주장은 모두 反淸的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고 비록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정조는 이 문제는 중대 사안이므로 여러 儒賢들에게 의견을 구하여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실제로는 이와 관련하여 일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자 같은 해 8월 28일 송덕상은 經筵官으로 晝講에 참석한 자리에서 太廟[종묘]의 祝文에 사용하는 年號가 청의 연호이므로 효종의 뜻에 크게 어긋난다고 하며 서울에 있는 儒臣들의 의견을 구하여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許衡의 문묘 출향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다. 허형이 본래 '송을 배신하고 원나라에 귀부한 사람[背宋歸元之人]'이며 송시열이 이미 허형의 '失身'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니 文廟에 그를 從祀하는 것이 극히 참람되다고 주장하면서 허형의 문묘 출향 문제를 在京儒臣들에게 물어 처리하자고 건의하였던 것이다.[83]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前參議 金亮行이었는데[84] 그는 經筵官으로 참석한 9월 8일 召對 자리에서 정조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양행은 송시열이 과거 許衡을 문묘에서 黜享시키려 했을 당시에는 朝報나 筵說의 내용이 청나라에 유출될까 우려하여 출향을 감행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출향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송덕상, 김양행이 주장한 허형의 문묘 출향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다. 조선에서 허형을 配享한 것은 명나라 때 명의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제 갑자기 그를 출향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조는 허형에 대해 '失身'했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失節'했다고 배척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송덕상은 허형이 '背宋歸元'했다고 비판하였는데 정조는 이를 '失節', 즉 忠의 의무를 저버리고 君臣之義를 어겼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정조는, 만약 그가 被髮左衽한 것을 가지고 허물로 삼는다면 그 당시에는 天下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죄로 삼을 수 없다

83) 『承政院日記』 1447책, 정조 3년 8월 28일 己卯.

84) 『承政院日記』 1447책, 정조 3년 8월 29일 庚辰.

고도 하였다. 그러자 김양행은 "그가 失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夷狄의 君을 섬겼기 때문입니다"라 하여 그가 두 왕조를 섬겨 군신지의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夷狄의 군주를 섬긴 것은 문제라 하며 강한 화이의식을 표출하였다.[85] 이러한 의식의 연장선에서 김양행은 또한 太廟의 축문에서 청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여 이를 고쳐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이 문제가 효종 때 이미 제기된 바 있지만 그 당시 청과의 외교적 긴장 관계로 인해 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조가 이튿날인 9월 9일 좌승지 鄭民始와 나눈 대화를 보면 정조는 이미 송시열의 또 다른 후손인 宋儒賢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역시 허형이 '胡人으로서 左衽했다'는 이유로 출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여전히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며 출향하자는 주장이 현재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계속 견지했다.[86]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87] 아무리 정조 자신이 청을 이적으로 보는 인식을 보였다 하더라도 정조가 갑자기 전례를 바꾸어 반청의식의 표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허형의 문묘출향을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청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당시 정조가 청과의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었다.

즉위 초기 정조의 조정에서는 이처럼 화이의식을 강하게 표출하는 신료들이 존재했다. 송재경, 심염조, 정광한처럼 청에 사신으로 다녀와서도 청의 문화를 이적시하는 발언을 한 신료들도 있었고 송덕상이나 김양행처럼 엄격한 화이론적 입장에서 조선의 예제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88]

---

85) 『正祖實錄』 권8, 정조 3년 9월 8일 己丑; 『承政院日記』 1447책, 정조 3년 9월 8일 己丑.

86) 『承政院日記』 1447책, 정조 3년 9월 9일 庚寅.

87) 종묘에서 사용하는 청 연호를 干支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미 영조 40년에도 등장한 바 있지만 이 관행은 정조 연간에도 바뀌지 않았고 19세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承政院日記』 1226책, 영조 40년 1월 16일 戊辰; 1873책, 순조 3년 11월 9일 庚子.

88) 제2장에서 언급한 인물 가운데 송재경, 심염조, 송덕상, 김양행은 모두 노론이었고 정상순은 소론, 채제공은 남인이었다. 정광한의 형은 鄭光殷이었는데 정광은의 두 아들은 鄭昌聖, 鄭昌順으로 모두 소론이었다. 본문에서 설명하였듯이 당시 노론 계열 신료들이 강한 화이론적 인식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제공 역시 건륭제의 통치를 비판하였고

즉위 초기 정조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또 국왕 및 신료들은 청의 조선 대우를 상당히 우호적이라 인식하거나 황제 개인의 통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청의 이적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인들이 생각한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유교문화의 담지와 실천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정조와 신료들의 인식은 여전히 청을 중화문화의 담지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영의정 김상철이 전례를 왜곡해가며 칠순 진하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조정에 분명히 존재했던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청에 사대의 정성을 다하는 적극적인 대청 외교가 화이론적 사고와 공존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며[89] 또한 청을 문화적으로 이적시하는 화이론이 청 황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청의 번성하는 현실 인정과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90]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정조가 즉위한 1776년부터 건륭제의 칠순 성절이 있던 1780년까지 펼쳐진 조선의 대청 외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1780년의 건륭 칠순 진하 및 그 이후 펼쳐진 정조의 대청 외교에 주목하였기에 정조 즉위 초기 대청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 연간 건륭제 칠순 진하 외교를 기점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변모하였다면 정조가 칠순 진하를 추진하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조가 178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적극적 대청 외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즉위 초기부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광한은 청의 이적성을 강조하였다.

89) 허태구, 앞의 논문.

90) 청의 번성하는 현실 긍정과 화이론의 공존에 대해서는 또한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대중, 2015「洪羲俊의 對淸認識」『고전문학연구』47; 김창수, 2019「耳溪 洪良浩의 華夷觀과 청 인식의 두 층위」『사림』69.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건륭 칠순 진하 외교를 정조 즉위 초기 추진한 일련의 외교 정책과의 연속성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정조 2년 조선 奏文의 違式을 건륭제가 지적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조선에서는 이를 해명하고 사과하기 위한 진주사를 파견하였고 이에 대한 건륭제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별사 파견을 통한 성의 표시에 건륭제가 조선 국왕의 공순함을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정조가 계속 적극적 사신 파견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건륭제가 심양으로 순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정조는 사신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신 파견을 요청하여 관철시켰고 그렇게 파견된 문안사행에 대해 건륭제는 정조의 정성을 다시 한번 칭찬하며 사신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건륭제의 우대에 고무된 정조는 건륭제의 동순을 진하하는 진하사 파견을 시도하였다. 이 구상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지만 정조 즉위 초기 적극적 사신 파견을 통해 정조가 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려 했던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정조의 구상은 이듬해인 정조 3년 청 황제의 칠순 진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칠순 진하를 제안하고 계획한 영의정 김상철은 강희 연간의 전례를 왜곡해서 마치 조선의 청 황제 칠순 진하 전례가 있는 것처럼 정조에 보고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앞서 좌절된 동순 진하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3년 연말 동지사편에 칠순 진하 표문을 겸부해서 보내는 것 외에 김상철은 이듬해 건륭제의 칠순 만수절 당일에 맞춘 추가적 사신 파견을 건의하였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강희 연간의 전례를 왜곡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공의 전례를 만들어 낸 이유는 물론 전례 없는 적극적 대청 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여전히 조정 내외에서 폭넓게 공유되던 청에 대한 화이론적 인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 설명하였듯이 당시 조정에서는 청의 번영하는 현실 및 건륭제의 통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별개로 청을 화이론적 시각에서 이적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종묘에서 청 연호를 사용하는 관행을 간지 사용으로 바꾸자거나 이적인 元에 출사한 유학자 허형을 문묘에서

출향시키자는 반청적 메시지를 담은 주장까지 국왕에게 개진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적으로 인식되던 청의 황제에게 정성을 기울인 사대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만들어 낸 전례가 정책의 추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정조는 즉위 초부터 적극적 사신 파견을 통한 우호적 대청 관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시도가 황제의 칠순 진하사 파견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건륭제가 심양 문안사를 우대해 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건륭제의 우호적 반응 및 사신 우대 또한 정조의 적극적 대청 외교를 더욱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80년대 및 1790년대 조선은 빈번한 사신 파견을 통한 적극적 대청 외교 정책을 펼쳤고 건륭제는 조선 국왕 및 사신에 대한 우대의 수준을 더욱 높였으며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는 한층 증진되었다. 이 시기 조선의 대청 인식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 하겠지만 본고에서 설명한 정조 즉위 초기 조선 국왕 및 신료들의 대청 인식은 1780년 이후의 그것과 비교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주제어 : 정조, 건륭제, 칠순 진하, 동순 진하, 화이의식, 전례 만들기

투고일(2021. 10. 26), 심사시작일(2021. 11. 10), 심사완료일(2021. 11. 25)

〈Abstract〉

King Chŏngjo's Diplomatic Policy toward the Qing during the Early Years of His Reign and the Court Officials' View of the Qing

Seunghun Han *

This article examines Chosŏn court's diplomatic policy toward the Qing during the first few years of King Chŏngjo's reign up until Qianlong Emperor's seventieth birthday in 1780. Existing studies have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this imperial birthday as a pivotal mo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osŏn and the Qing. Seldom, however, did they venture to explore the role and importance of Chŏngjo's early policy toward the Qing prior to 1780. This article argues that, during these early years of his reign, Chŏngjo actively pushed forward various measures to show the sincerity of the Chosŏn in "serving the great."

The king sent a special diplomatic mission to the Qing to apologize for inappropriate words in a previous memorial. The king also dispatched envoys to Shengjing in Manchuria to greet Qianlong despite the emperor's prior order to exempt Chosŏn from this obligation. These were all received very favorably by Qianlong. Furthermore, Chŏngjo even insisted the court send a special envoy to celebrate the imperial visit to Shengjing, even if his suggestion did not materialize mainly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precedent. All of these active royal efforts aimed at exemplifying to the Qing the "sincerity" of Chosŏn and at bolstering amicable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The court's decision to celebrate in advance the seventieth birthday of the emperor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It did not mark the beginning of Chŏngjo's active policy toward the Qing but was a continuation of a series of such efforts taken earlier in his reign. Chosŏn, however, had no precedent that could justify sending a mission to celebrate the seventieth birthday of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onkuk University.

a Qing emperor. Shortly before the demise of Kangxi Emperor in 1722, the Qing court delivered an order to Chosŏn that an envoy should be sent carrying a special memorial congratulating the seventieth imperial birthday that would fall in the third month of 1723. The memorial, however, was never submitted because of the emperor's death.

While assigning to the regular mission arriving in Beijing at the end of 1779 the task of carrying a memorial celebrating Qianlong's seventieth birthday, Chief State Councilor Kim Sangch'ŏl surprisingly claimed that Chosŏn had sent an envoy to celebrate Kangxi's seventieth birthday, fabricating a precedent by distorting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earlier. Kim's fabrication of a precedent undoubtedly grew out of his concern to justify the king's unprecedented action to send such a mission.

Kim soon fabricated another precedent regarding the timing of Chosŏn's celebration of Kangxi's birthdays, this time to support his suggestion that the court sends another mission in 1780 to celebrate the imperial seventieth birthday on the birthday itself. Why was Kim's fabrication necessary? This article argues that solid Sino-barbarian dichotomy pervasive among envoys and other court officials at that time lay behind Kim's fabrication.

With the flourishing of the Qing and the stabilization of Chosŏn-Qing relations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here were officials in Chosŏn who acknowledged the prosperity of the Qing. The view that the Qing was treating Chosŏn very favorably was also widely shared among the monarchs and court officials. However, underneath this level of perception toward the Qing lay a firmly-rooted view that considered the Manchus as barbarians. Celebrating the seventieth birthday of a Qing emperor was, in fact, unprecedented, and the Qianlong's court, at least officially, had never mandated Chosŏn to dispatch a mission for that purpose. The dispatch was primarily a voluntary move by Chŏngjo. In light of the still-solid Sino-barbarian dichotomy, the lack of a precedent, and the absence of a Qing order to mandate the dispatch of a mission, it was difficult for Chŏngjo to put his scheme into action. Kim Sangch'ŏl, therefore, found a way to relieve the burden for the king by fabricating precedents justifying Chŏngjo's actions.

Key Words : Chŏngjo, Qianlong, Qianlong's seventieth birthday, Eastern imperial tour celebration, Sino-Barbarian dichotomy, precedent fabrication